

제 7회 캠브리지 유산 세미나: 컨퍼런스 보고서
유형-무형문화유산, 지속 가능한 이분법인가?
Conference Report:
Tangible-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 Sustainable Dichotomy?
the 7th Annual Cambridge Heritage Seminar

샤를로트 앤드류스(Charlotte Andrews), 다치아 비에조-로즈(Dacia Viejo-Rose),
브리트 베일리(Britt Baillie), 벤자민 모리스(Benjamin Morris)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University of Cambridge), 고고학과 박사 과정

제 7회 캠브리지 유산 세미나: 컨퍼런스 보고서 유형-무형문화유산, 지속 가능한 이분법인가?

● 샤를로트 앤드류스(Charlotte Andrews), 다치아 비에조-로즈(Dacia Viejo-Rose), 브릿 베일리(Britt Baillie), 벤자민 모리스(Benjamin Morris)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University of Cambridge), 고고학과 박사 과정

서론

10여 년 전부터 캠브리지대학교에서 열리기 시작한 캠브리지 유산 세미나(Cambridge Heritage Seminar, CHS)에서는 당시 초기 단계였던 문화유산에 대한 작업이나 연구 도중 떠오른 아이디어와 질문, 사례 연구를 서로 논의하기 위한 포럼을 만들었다. 이 세미나는 시작 단계부터 효과적인 대화의 자리임이 입증되었으며, 행사 자체와 관련 출판물을 통해 매우 다양한 분야에 대해 높은 관심과 세평을 쌓았다.

그 이후 유산 연구 분야가 (유산 연구로 명칭화 되었듯이) 발전하면서 이 세미나 역시 학자들 간의 이론 및 실천의 상호 발전을 목적으로 학계, 정계, 실무자들과의 협업을 확대했다. 2006년 5월 13일 맥도날드 고고학 연구소에서 열린 2006년 캠브리지 유산 세미나는, 급속히 변해가는 (때로는 '물질' 및 '비물질' 유산으로 불리는) 유형 및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을 보다 잘 이해시키려는 목표로 개최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구조와 다양한 참석자 구성을 통해, 열린 토론과 학제적(學際的) 학습이라는 캠브리지 유산 세미나의 전통이 이어졌다.

2006년 5월에 열린 컨퍼런스의 주요 관심사는 컨퍼런스가 있기 한 달 전인 2006년 4월에 발효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이하 2003년 협약)의 임박한 비준이었다. 이 협약에서 다루는 분야의 발전 그리고 그 해석과 실행에 대한 논쟁을 고려했을 때, 이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검토한 것은 시기상으로 적절했다. 2003년 협약에 대한 논의가 그날 내내 주를 이루었지만, 그 외의 다양한 이슈들 역시 여러 논문, 포스터, 대화 등에 등장했다. 참가자들은 유형과 무형문화유산 사이의 이분법, 이론적이나 실제적으로 유용한 지에 대해 칭찬을 하기도 하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면서 웅변을 토했다. 이에 대한 논의를 보다 광범위한 유산 연구 커뮤니티에 까지 확대하기 위해, 컨퍼런스 요약(3부), 주요 논의 내용, 그리고 향후 연구를 위한 방법 등을 이 보고서에 담았다.

담화의 발전

초반부터 유형 및 무형문화유산의 두 개 개념에 대한 명확하고 소통 가능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우선순위였다. 이날 토론의 기반을 세우기 위해, 유네스코의 데이비드 스텔(David Steh)이 '2003년 협약'의 역사와 내용을 발표했으며, 여기서 그는 2003년 협약과 1972년의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를 위한 유네스코 협약(UNESCO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과의 맥락을 설명하면서 회원국들에 대한 조항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스텔은 여러 나라의 예를 들며, 2003년 협약이 '살아있는' 유산에 중점을 두었다는 사실과 이 협약이 다루는 문화적 표현의 범위를 강조했다. 하지만 스텔은 유네스코가 채택했던 다른 협약과 마찬가지로, 회원국들의 충분한 지원이 없는 이러한 국제적 협약이 무용지물이라며 이 협약이 제공하는 권고안을 회원국들이 잘 완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텔에 이어, 클라우드 아도우인(Claude Ardouin, 대영박물관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메리카과)은 유형과 무형의 구분에 대한 유통성에 대해 언급했다. 대상을 보호하고 해석하는 박물관의 역할은 전시물에 대한 관람객의 경험에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50년대와 60년대에 서아프리카에 널리 보급된 시트로엥 T45 트럭은, 이 트럭을 운전하거나 여기에 탑승하고, 기타 다른 상황에서 상호작용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와 구전 전통 속에 섞여 들어가게 되었다. 아도우인은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의 비분리성이 현대 유산 연구의 '첫 번째 원칙' 중 하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범주의 형성과 이러한 범주를 인위적으로 구분시킨 지적이고 관리적인 수단을 밝혔다. 그는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을 구분하던 행태가, 명백히 다른 지식 클러스터(knowledge cluster)들 사이의 연결을 강조하는 적절한 학제적 훈련을 통해 성공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유형의 대상과 그것을 둘러싼 무형의 관계를 결합함으로써 박물관 직원과 이해관계자들은 그 역사와의 강하고 보다 풍부해진 관계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스텔과 아도우인의 소개 발표와 마찬가지로, 이 세션의 다음 네 개의 논문은 이론과 실용성 사이에서 갈등했다. 아드리안 칼보-발데라마(Adrian Calvo-Valderrama, 프랑스 피에르 멘데스 대학)는 그의 논문 "유형유산에서 무형유산으로: 사회학적 질문(Tangible to Intangible Heritage: A Sociological Question)"에서 사회학자의 관점을 제공했다. 칼보-발데라마는, 범주가 우리의 생각을 담는 단단한 틀이라고 한 에밀 뒤르캄의 정의를 이용하여 유네스코의 무형유산에 대한 정의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고, 일상성의 개념화가 갖는 함의, 언어 사용, 프락시스(praxis) 등 그러한 정의가 가질 수 있는 함의들을 고려했다. 그는 모든 인류를 위해 존재한다는 정의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고민은 스테파니 코에너(Stephanie Koerner)와 로나 싱글턴(Lorna Singleton, 맨체스터대학교)의 논문 "조용하지 않은 과거: 변화하는 과학, 기술, 인간 가치의 사회 지리학에서 이유가 중요시 되는 문화유산 및 공간(The Unquiet Past: Cultural Heritage and Spaces Where Reasons Matter in the Changing Social Geography of Science, Technology, and Human Values)"에 다시 등장한다. 이들은 갈등, 글로벌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사회 지리학에 끼치는 영향이, 어떻게 전통적인 삶의 방식과 언어, 관습, 문화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는지를 보여주었다. 이들의 관점에서 볼 때, 2003년 협약은 그 프로토콜의 주요 부분인 보호 대책의 홍보를 통해 이러한 두려움을 진정시키고 있었다. 또한 코에너와 싱글턴은 2003년 협약을 통해 (로라제인 스미스의 표현인) '공인된 유산 담화(Authorised Heritage Discourse)'가 전문 지식과 책임에 관한 서양의 이론들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는 탈식민지적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논쟁의 여지가 매우 높은 '공인된 유산 담화'에 대해서는 이번 세션의 다른 두 참석자인 에마 워터튼(Emma Waterton)과 로라제인 스미스(Laurajane Smith, 요크대학교)에 의해 다루어졌다.

워터튼의 논문인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 무형유산과 지배적 유산 담화(We Have Trouble Communicating: Intangible Heritage and the Dominant Heritage Discourse)'에서 워터튼은 사람들이 1972년 세계 유산 협약에서 정의된 '우수한', '유형의', '미학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유산에 대한 담화에 '익숙'해졌으며, 그로 인해 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는 2003년 협약의 비준에 서양의 국가들이 상당히 불참하고 있다는 사실이 글을 작성한 2006년 가을까지 영국은 비준 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이 말해주듯이 무형유산의 개념이 학자와 정책입

안자 사이에서 완전히 채택되지 않은 이유를 잘 설명해준다고 그녀는 말한다. 워터튼은 (1972년 협약에서 규정된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에 뒤이어) 무형유산을 유산의 세 번째 범주로 분류해 줌으로써 '공인된 유산 담화'가 아무런 문제없이 채택되었다고 주장한다. 무형성(intangibility)을 이론화하려는 시도들은 이미 정립된 유산의 범주들을 벗어났으며, 그로 인해 학계에서는 그 자리를 보다 구체화하게 되었다.

워터튼의 주장을 보다 심화시킨 로라제인 스미스는 그녀의 논문 '유산과 유산의 무형성(Heritage and Its Intangibility)'에서 유산이 물질적이거나 비물질적이냐를 정의할 것이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문화적 문맥상에서 유산이 이루어낸 것에 의해 유산을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유산을 실제적인 '물건'(사물과 활동, 이벤트의 가치 및 의미와 상반되는 기념물, 공예품, 건물 등으로만 보는 '공인된 유산 담화'가 우리로 하여금 유산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작용을 보지 못하게 하는 방식을 설명했다. 로라제인은 이러한 근거 하에 모든 유산은 사실상 무형적이며, 유산이 정체성, 장소, 기억 등의 지속적인 건설 및 협상을 통해 문화적이며 사회적 변화를 증대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유산은 문화적 문식성(cultural literacy)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얻게 될 문화적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시연될 수 있는 활동적이고 수행적인 것이 된다. 마지막으로, '부조화의 유산(dissonant heritage)'에 관한 애쉬워스와 턴브리지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로라제인은 모든 유산은 서로 경쟁하며 문화유산의 발전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경쟁을 협상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형태와 의미

이후의 논문에서는 이러한 추상적 개념들이 실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탐구하기 위해 이들의 실제 영향과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 연구를 활용했다. 또한 문화유산이 관람객의 경험에 의해 어떻게 변화하고 소비자가 유산의 성격과 그 다양한 형태를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탐구했다.

첫 두 논문은 가상의 구도로서의 유산의 개념과, 유산으로서의 가상의 구도에 대해 논의했다. 존 카먼(Jonh Carman, 버밍엄 대학교)은 자신의 논문 '공중누각: 유형의 무형성(Castles in the Air: the Intangibility of the Tangible)'에서 유산이 사물의 수집품이라기보다는 생각의 영역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그 사물에 대해 가진 생각과 기억, 그리고 그에 대한 상징적인 가치가 사물을 유산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며, 그 반대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논문에서 전장(戰場)과 연

관련 유산의 예를 들어, 기념물 및 재현물이 사건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회상시키고 대체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이로써 새로운 사물의 창조에 무형의 과거가 반영된다고 주장했다. 무의 공간이 전장으로, 그리고 다시 유산의 공간으로 전환되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는 우리가 전투에 관해 명예를 부여하려 하는 것은 과거의 사건 자체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의 필요성을 훨씬 더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벤자민 모리스(Benjamin Morris, 캠브리지대학교)는 공간의 전환에 대한 키먼의 단서를 활용하여 문학적 노력으로 태어난 유산의 구도를 그려보았다. 그의 논문 '언어와 돌의 제단: 유산으로서의 문학(Altars of Words and Stone: On Literature)'은 문학 없이는 지금의 형태를 갖추지 못했을, 역사나 정치가 아닌 소설과 시에 의해 창조된 유산의 예에 중점을 두었다. 그는 문학유산의 세 가지 주요 범주로, 문학 전통과 연관된 장소, 보존이 필요한 (편지와 원고 등) 문학의 물리적 자취, 문학 활동을 양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현대의 기관을 구분하였다. 또한 그러한 예로 스완지(Swansea)에 위치한 (일본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관광객이 찾아오는) 딜런 토머스(Dylan Thomas)의 생가와 같은 작가들의 생가를 순례하거나, 소설 미드나잇 가든(Midnight in the Garden of Good and Evil)에 등장하면서 관광지가 된 조지아의 한 공동묘지와 같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장소를 순례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모리스는 사례연구로 스코틀랜드를 언급하며, 에든버러 시가 어떻게 유네스코의 첫 번째 세계 문학의 도시로 선정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했다. 그는 문학유산은 유형유산이 갖는 시공간적 경계를 넘어서지만, 시공간적 경계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현재 활동 중인 작가들에 미치는 결과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마무리했다.

키먼과 모리스가 내러티브의 무형 유산에 초점을 맞췄다면, 다른 두 논문은 생존해 있는 사람과 그 활동에 명확히 드러난 무형유산을 분석했다. 키아라 보르톨로토(Chiara Bortolotto, Istituto di Arti Clture e Litterature Comparate IULM)는 자신의 논문 '인간문화재와 그들의 유형 상품: 마테라의 전통 호각(Human Treasures and their Tangible Products: Traditional Whistles in Matera)'에서 인간문화재라는 칭호가 미치는 변형적 영향에 관해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이탈리아 남동부의 풀리아(Puglia)와 바실리카타(Puglia) 지역의 전통 호각 제작을 살펴보면, 인간문화재라는 칭호를 얻은 한 장인의 사례를 들며, 이 칭호가 어떻게 그와 그의 활동, 그리고 제작품에 영향을 주었는지 보여주었다. 인간문화재가 된 그의 예술 작품은 이 지역의 전통 도예의 대표적 상징이 되었고, 그는 작품에 서명을 하여 자신의 작품을 값비싼 수집품으로 만들었다. 그 결과, 이 호각은 장식품으로 변해 전통 놀이에 쓰이던 원래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보르톨로토의 논문은 유산의 개념을 지나치게 덧붙이려는 의욕 넘치는 유산 관리자들에게 훈계를 주고 있다. 그녀는 이러한 의욕이 이로움보다 더 큰 해로움을 줄 수도 있으며, 그 결과가 참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든 니콜스(Marden Nichols, 캠브리지대학교)의 논문 '민속의 문서화? 20세기 무형유산(Documenting Folklore? Intangible Heritage in the 20th Century)'은 20세기 유산으로서의 민속의 발달에 대해 조사했다. 그녀가 던진 이슈와 예는 문서화의 문제를 중점으로 다루고 있으며, 여기에서 용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무형유산의 문서화를 둘러싼 긴장과 논쟁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헨리 채프먼 머서의 모라비아 도기 및 타일 공예에 대한 그녀의 사례 연구에서는 무형유산 보호에 대한 생산적인 경로를 제시했다. 머서는 타일과 도자기를 수집했을 뿐만

아니라 제작 및 디자인과 관련한 생산 기법을 연구하고 이러한 지식을 활용하여 타일을 제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 이 예는 우리가 문서 보관을 '동결되고 죽은' 문화라고 비난하는 것이, 오랫동안 수행되지 않은 유산 표현을 미래의 세대가 다시 발견하고 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보르톨로토의 연구처럼 니콜스의 논문 역시 (실제 제작자가 아닌) 문화적 활동을 복원하고 유지하려는 유산 관리자와 다른 열정가들의 간섭이, 어떻게 가치를 발휘하는지를 보여주었다.

해석과 표현

이 날의 마지막 세션은 발표 및 연구 중심적 접근 방법 모두에 있어서 문화유산 관리에 대한 유형 및 무형유산의 영향과 의미를 평가하는 것에 집중되었다.

패트릭 보일런(Patrick Boylan, 런던시티대학교)은 그의 논문 '무형유산: 박물관 및 박물관 전문가 양성을 위한 난제와 기회(The Intangible Heritage: A Challenge and an Opportunity for Museums and Museum Professional Training)'에서 과거 박물관들이 보였던 물리적 유물에 대한 집착에 대해 흔히 하는 일반적인 비판을 뛰어넘어, 많은 박물관들이 사실상 품고 있는 비물질적 문화에 대한 고민을 제시했다. 박물관들이 점점 더 무형유산을 인정하는 가운데 보일런은 박물관들이 2003년 협약에 나온 특정 문화 영역과 방향을 같이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논했다. '학자형 학예사'가 이끄는 수집 중심의 박물관과, 다기능적이고 전체론적 마인드를 가진 팀이 이끄는 새로운 공동체 중심의 박물관 양방에 대해 그는 박물관 전문가를 위한 전문화되고 종합적인 평생 교육 및 역량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박물관 분야의 지속적인 변화와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무형유산의 보호와 홍보, 특히 유네스코가 성문화한 대로 이를 수행하는 것이 시시상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였으며, 또한 그가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제저널 무형유산'의 다음 호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성문화는 실천적 결과 없이는 무의미하다. 모하메드 바운히스(Mohamed Bounhiss, 런던시티대학교)는 그의 논문 '지속 가능한 유산: 모로코의 생태 박물관 개념(Sustaining Intangible Heritage: The 'Eco-Museum' Concept in Morocco)'에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다. 모로코 출신인 바운히스는 조국의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유산에 대한 박물관학적인 반응을 평가하기 위해 지역적이며 국가적인 맥락 사이의 간격을 좁혔다. 바운히스는 모로코의 현대 유산 관리 및 박물관학의 기저에 있는 식민지적 유산과 이념적 틀을 추적하여, 박물관들이 계속해서 다양한 지역 정치 및 문화의 형태를 인식하고 반응하는 데 실패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는 또한 이 박물관들이 외국인 및 관광객의 기호에 편승하여 유형 유산에 특권을 부여한다고 주장했다. 논문의 후반에서는 지역적 정의, 의제, 환경 등이 보완적인 방식으로 유형 및 무형유산을 맥락화하고 보호하는 아이트 이크텔 마을의 생태박물관에 대한 분석을 공립 박물관들의 차별적인 역할과 대조했다. 그는 이러한 박물관이 문화적 정체성이 유기적이고 완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며, 갱신 가능한 유형의 박물관일 뿐만 아니라, 영토, 지역사회, 소장품, 공예, 산지 등의 자원이 경제 성장, 지역 사회 발전, 그리고 보다 넓은 사회적 권한으로 이어지게 하는 박물관이라고 주장했다.

세계의 다른 지역에 대한 사례 연구 역시 유사한 통찰을 제공했다. 사라 번(Sarah Byrne, 런던 유니버시티컬리지)은 고고학적 연구 및 파푸


아뉴기니의 사례 연구(Archaeological Research Implications and the Case Study of Papua New Guinea)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유니아파 섬(Uneapa Island) 내 기념 단지가 갖는 사회적 의미에 대한 탐구를 통해 연구 의제를 위한 이분법의 지속 가능한 지에 의문을 던졌다. 그녀는 유산 활동에 대한 유형-무형의 분리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함의를 인정하면서도, 그 제한적 혜택과 심지어 과거와 현재의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데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번은 실천보다 인식, 물질성보다는 사회적 행동을 더 중시하며, 사회적 의미들이 통합되는 방식을 적절히 설명해주지 못하는 탈과정주의 의제를 비판했다. 그녀는 실질적이며 사회적인 의미가 크게 결여된 방법론적 구성체로서 그러한 구분의 진정한 성격을 거부하면서 유형 및 무형 요소 간의 미묘한 상호작용을 인식하는 균형 잡힌 연구를 옹호했다.

토론 및 향후 연구 방법

베버리 버틀러(Beverly Butler, 런던 유니버시티컬리지)가 진행한 원탁회의에서는 발전 방향과 향후 연구 방법에 대한 제안들이 나왔다. 지금까지 논의된 이슈들은 확실한 결론에 이르기까지 좀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발표자와 참석자들로부터 얻은 몇 가지 교훈이 있었다. 첫째, 이 컨퍼런스의 주제에도 부합하지만, 유형 및 무형(또는 물질/비물질) 유산 간의 이분법은 지속 가능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그 이유는 물질문화가 그것에 담긴 의미와 가치의 명백한 인정 없이 해석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조주의적 비판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분법을 제안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반대를 표명하는 것은 아니며, 문화유산과 같이 변하기 쉬운 개념은 대립적 방법보다는 물질과 비물질 간의 변증법이 요구된다. 물질 문화는 사회적 또는 인식론적 행동에 대한 역량 속에서만 완전히 이해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보존과 보전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상당량의 문화적 정체성을 빚지고 있는 물질 유산의 개념적 기초 또한 그것들이 속한 대상과 공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물질 유산과 비물질 유산 간의 상호작용이 부분적으로는 밝혀졌지만, 남은 과제는 이러한 상호작용이 어떻게 법적 구조와 행동으로 전환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환에 성공 또는 실패한 사례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의 이론적 그리고 실용적 자료를 크게 늘려줄 것이며, 또한 보다 정보가 풍부하고 분열의 위험이 적은 유산 보호의 실천을 위한 길을 제시해 줄 것이다.

2003년 협약을 비롯한 국가들을 간단히 살펴보기만 해도 유형/무형 유산의 상호작용에 대한 대부분의 생각들이 어디까지 나아갔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며, 또한 이러한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서양 중심의 연구자들에게는 유익할 것이다. 유네스코의 '인류의 구전 및 무형 유산 걸작 목록'이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보로톨로토가 말했듯이) 2003년 협약과 같은 선언 자체가 대상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비교 문화적 연구와 협업뿐만 아니라 유형성과 무형성에 대한 이해의 다원성을 존중하는 것은 이러한 협약과 같은 결실을 가져올 여러 가지 방법들 중 하나다. 

주석

- 다음 컨퍼런스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면 CHS 홈페이지 방문. <http://www.arch.cam.ac.uk/heritage-seminar/> (제7회 컨퍼런스에 대한 자료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 ..UNESCO: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1972. <http://whc.unesco.org/>
- ..UNESCO: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03. http://www.unesco.org/culture/ich_convention/index.php
- ..UNESCO: Third Proclamation of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2005. <http://www.unesco.org/culture/intangibleheritage/index.htm>, (consulted 1st November 2006)